

## 일제 말기 이주홍의 연재만화 『즐거운 박(朴)침지』 연구\*

류 종 렬\*\*

### 차 례

- |                                  |                   |
|----------------------------------|-------------------|
| 1. 서론                            | 1) 『家庭の友』에 연재된 만화 |
| 2. ‘국민총력운동’의 실천과 『즐거운<br>박(朴)침지』 | 2) 『半島の光』에 연재된 만화 |
|                                  | 3. 결론             |

### 국문초록

이주홍의 『즐거운 박(朴)침지』는 일제 말기 친일잡지인 『家庭の友』 1940년 11월부터 1941년 3월까지 그리고 『家庭の友』의 후신인 『半島の光』 1941년 4월부터 1941년 8월까지 10회 연재된 만화로, 각 편이 15칸으로 짜여져 있다. 이 중에서 1941년 3월호는 영인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 만화는 일제 말기 신체제하의 ‘국민총력운동’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박침지이며, 그와 다소 대립되는 인물로 허별감이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있다. 그런데 박첨지는 초기의 만화에는 조선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이후에는 모범부락의 애국반장으로 신분이 변모한다. 조선금융조합은 일제의 정치선전기관으로서 한국인의 친일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인공을 이런 조합원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펴낸 『家庭の友』라는 잡지의 성격에 부합되는 인물을 내세워 대일협력을 의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당시 애국반의 반장은 애국반원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였고 나아가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모든 공출과 배급의 기본 조직으로까지 기능을 한 일종의 말단 권력기관이었다. 그러나 만화 『즐거운 박(朴)첨지』에서 주인공 박첨지는 애국반장으로서 크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박첨지가 모범부락 애국반장으로서 술선수범하여 애국반원인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여 일제가 주력하는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다. 그는 다소 그와 대립하면서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뻔짓거리는 성격의 허별감을 끊임없이 감싸고 설득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전체적으로 박첨지와 허별감의 대립되는 캐릭터가 작품에 웃음과 해학을 부여하면서 이야기를 맛깔나게 끌고 나간다. 그는 애국반원들과 농촌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불어 부대끼며 살아가는, 제목과 같이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만화는 적극적인 대일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를 웃음과 해학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즐거운 박(朴)첨지』는 일제 말기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1940년 11월부터 1941년 8월까지 식민지 농촌의 한 모범부락을 배경으로 하여, 부락일에 술선수범하며 애국반원들을 이끌어가는 성실한 조선금융조합의 모범조합원이자 애국반의 반장인 박첨지와, 그와 대비되는 게으르고 이기적인 인물인 허별감을 등장시켜, 농촌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황국신민으로서 활동을 웃음과 해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즉 신체제하의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이라는 내용을 제국주의 일본의 시선으로 선전하고 있는 비뚤어진 해학정신을 보여주는 만화이다.

주제어 : 이주홍, 연재만화 『명랑(明朗)한 김산 일가(金山一家)』, 대일협력, 비뚤어진 해학정신

## 1. 서론

이 글은 향파 이주홍이 일제 말기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발표한 만화 작품 중에서 연재만화인 『즐거운 박(朴)침지』(1940.11.-1941.8.)와 『명랑(明朗)한 김산 일가(金山一家)』(1942.1.-1942.12.) 중에서 『즐거운 박(朴)침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만화 장르 자체의 표현적 특징이나 이 만화가 지니는 한국근대만화사에서의 위치 등은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만화가 지니고 있는 이야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주홍이 일제 말기에 보여준 사상적 변모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제 말기 이주홍의 대일협력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즐거운 박(朴)침지』는 『家庭の友』 1940년 11월부터 1941년 3월까지 그리고 『半島の光』 1941년 4월부터 1941년 8월까지, 10회 연재된, 15칸의 만화이다.

지금까지 이 만화 작품에 대한 연구는 오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진원은 기존의 이주홍 연표에 1941년과 1942년의 활동이 빠져 있다고 하면서 『동아일보』와 『半島の光』에 실린 이주홍의 만화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半島の光』에 실린 이주홍의 만화는 ‘이주홍의 감춰졌던 친일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半島の光』에 실린 연재만화 『즐거운 박침지』와 『명랑한 김산 일가』를 각각 한 편씩 소개하면서, 이들에 대해 “『半島の光』에 실린 이주홍의 만화는 이주홍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준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충격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이주홍 만화 속에 깃든 친일의 모습이다. 동아일보에 실린 만화들이 사람들의 일상 모습에 중점을 두었다면

『半島の光』에서는 친일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동문학 작품들이 갖고 있는 웃음과 해학이 만화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 친일 작품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마치 당시의 소소하고 재미난 일상의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냥 일상에 묻혀 지내며 자연스럽게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다. ‘즐거운 박첨지’의 경우 모범촌 반장 박첨지가 동네를 이끌어 나가며 뻥질 거리는 허별감을 설득하는 형식으로, 박첨지와 허별감의 대립되는 캐릭터가 작품을 맛깔나게 끌고 나간다. 그런데 가만 보면 모범촌 반장 박첨지가 마을 사람들을 독려해 하는 일이란 하지만 일제가 벌이는 사업에 앞장서는 일이다. ‘명량한 김산 일가’의 김산 역시 ‘즐거운 박첨지’의 박첨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즐거운 박첨지’에 비해 주제가 아주 노골적이다. 이쯤 되면 아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주홍의 적극적인 친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주홍의 연표에서 빈 기간은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만

1) 알려진 바와 같이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은 일제 말기에 발간된 친일 잡지이다. 『家庭の友』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12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월간으로 펴낸 기관지로서, 1941년 3월까지 통권 41호가 발간되다가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1941년 4월부터, 『半島の光』으로 제호를 바꾸어 해방 전까지 월간으로 간행된 기관지 겸 종합잡지이다. 이 두 잡지는 일본인 소구홍과 청수정일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화상회 인쇄소와 매일신보사 인쇄부에서 인쇄하였다. 당시에는 더물게 한글로 주로 인쇄되었으나 권두언 등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半島の光』은 일문판인 ‘화문판’과 한글판인 ‘선문판’으로 나누어 발간되었다. 이 잡지들의 내용은 처음에는 주로 농촌 가정생활에 필요한 소식들이었으나, 1930년대 말기부터는 대일협력적인 시국적 내용이 중심이 된 전형적인 친일잡지이다. 적지않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친일 작품을 발표하였다. 향파도 1940년 2월 『家庭の友』에 만문만화 「대지(大地)의 아들」을 시작으로, 1944년 1월 『半島の光』에 만문만화 「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을 발표하기까지 40여회에 걸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 만화 작품이다. 이 잡지의 구체적인 성격과 향파의 작품 목록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류중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家庭の友』와 『半島の光』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

화 『즐거운 박침지』와 『명량한 김산 일가』에 대한 최초의 지적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오진원이 발굴했다는 자료는 이미 연합뉴스에 의해 정리되어진 것이었고, 만화 『즐거운 박침지』는 『家庭の友』 1940년 11월에서 1941년 3월까지 연재되다가 『半島の光』으로 이어져 계속 발표되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sup>2)</sup>

그리고 이 글은 만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와 익살이라는 특징에 가려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시선의 정치’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사만화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재미있게’ 또는 ‘알기 쉽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가 공유한 상징체계와 표현양식을 통해 특정 경향의 ‘규율’을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정치 권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화매체의 생략과 과장이라는 형식 속에는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성이 잠재되어 있다.<sup>3)</sup>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발표된 작품들이 모두 시사풍 자만화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은 만화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필자는 이미 일제 말기 이주홍의 작품 연구를 위해, 『동양지광』에 발표된 이주홍의 일문(日文) 작품들을 3편의 논문을 통해,<sup>5)</sup> 또한 『家庭の

총』 제74집, 한국문화회, 2016, 393-428쪽.

2) 연합뉴스, 『이주홍 작품 연표』, 김인환·정호웅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논문집』, 민음사, 2006, 110-136쪽;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家庭の友』와 『半島の光』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화회, 2016, 399쪽;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화회, 2013, 477-512쪽.

3) 한상일·한정선,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일조각, 2006, 5쪽. 필자는 이주홍의 만화를 연구하면서 이 책의 연구 방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4)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家庭の友』와 『半島の光』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화회, 2016, 399쪽.

5)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화회, 2013, 477-512쪽.;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2)』, 『한

友』와 『半島の光』에 발표된 만화들을 3편의 논문을 통해<sup>6)</sup>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 논문들의 후속 연구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발표된 이주홍 작품 연구를 완결하고자 한다.

## 2. ‘국민총력운동’의 실천과 「즐거운 박(朴)침지」

「즐거운 박(朴)침지」는 『家庭の友』 1940년 11월부터 1941년 3월까지 그리고 『半島の光』 1941년 4월부터 1941년 8월까지, 10회 연재된 만화이다. 이 중에서 1941년 3월호는 영인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 만화가 발표된 1940년 11월부터 1941년 8월까지의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전시동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에도 ‘국민총력운동’을 시행하던 시기이다. 1940년에 들어서자 유럽 전선에서의 독일의 총공세와 승리에 고무된 일본 군부는 대정익찬회라는 일본주의(日本主義) 국체론(國體論)을 전면에 내세운,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을 위한 파쇼적 정치체제의 중심 조직을 결성한다. 대정익찬회의 성립으로 일본에서는 기존의 모든 정당은 해산되어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국일당적(一國一黨的) 체제가 만들어졌고, 자연히 이전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조직 또한 대정익찬회에 편입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대정익찬회를 중심으로 한

---

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2014, 179-205쪽;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만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8집, 한중인문학회, 2015, 127-151쪽. 이들 논문은 류종렬, 『이주홍과 『동양지광』』(세종출판사, 2017)에 수록되어 있다.

6)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 393-428쪽;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2)」, 『한국문학논총』 제76집, 한국문학회, 2017, 405-437쪽;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연재 만화 「명량(明朗)한 김산 일가(金山一家)」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7집, 한중인문학회, 2017, 1-32쪽.

신체제운동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조선에서는 이와 보조를 맞추어 종래의 1938년 7월에 만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조선에서의 신체제 확립을 위한 ‘국민총력운동’으로 전환시켜 나아갔다. 1940년 10월 16일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은 시작된다. 국민총력운동은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이라는 전쟁 수행을 위한 체제 확립에 조선 민중들을 직접 참여시킬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국방국가라는 것은 국가총력전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는 이러한 고도국방국가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중일전쟁을 처리하고, 동시에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여 독일·이태리와 함께 소위 ‘세계신질서’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국방국가의 요소로 들고 있는 것이 국민정신의 통일, 국민총훈련, 자급자족을 위한 최고도의 생산력 확충의 세 가지였다. 일제측을 표현을 빌면, “그 세 가지를 성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번 조선에 만들어진 국민총력운동이다. 이 국민총력운동에 의해 총량한 황국신민의 정신으로 통일하는 것, 모든 기회에 국민이 이 중대한 임무를 이겨 낼 수 있도록 국민의 총훈련을 이루는 것, 각기 그 직장마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생산력을 확충하고 자력에 의해 자급자족을 만드는 것, 이것이 즉 국민총력운동의 목표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총력운동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국가지상주의 아래 자신의 이익을 제2차 이하에 두고 멸사봉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총력운동에서는 처음부터 조선연맹을 ‘조선의 전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할 것’을 명시하고 전 조선인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시도하였다.<sup>7)</sup>

만화 『즐거운 박(朴)침지』는 이러한 ‘국민총력운동’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

7)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77, 123-128쪽.

이고 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박첨지이며, 그와 다소 대립되는 인물로 허별감이 있다. 그런데 박첨지는 초기의 만화에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조합원으로, 이후에는 모범부락의 애국반장으로 신분이 변모한다. 아만화가 처음 발표된 『家庭の友』는 바로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월간으로 펴낸 기관지로서, 이 잡지의 내용은 농촌가정생활에 필요한 새소식이나 새지식이 중심이었으나, 일반 상식이나 농촌부인의 육아, 요리 등 교양관련 강좌, 흥미있는 이야기거리,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만화 등 다양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1930년대 말기에 오면 대일협력적인 시국적 내용이 점차 많아져서 완전한 친일잡지로 바뀐다.<sup>8)</sup> 이주홍도 연재 초기에는 이 잡지의 성격에 부합되는 인물, 즉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모범조합원으로 주인공을 설정한 것이다. 조선금융조합은 “일제의 정치선전기 관으로서 반일감정을 누구러뜨리고 한국인의 친일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금융조합의 업무도 대부와 농사 지도가 아니라 총독정치의 해설이었던”<sup>9)</sup> 것이다. 주인공을 이런 조합원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대일협력을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범부락의 애국반장으로 신분을 변모시켜 본격적인 대일 협력에 가담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애국반은 일제가 조선에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선연맹을 만들 당시에 그것의 지방조직망 가운데 최말단의 기저적(基底的) 실천기구로 만들어 졌는데, 이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선연맹에 이어 1940년 10월 결성된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실시한 국민총력운동 시기에

8)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家庭の友』와 『半島の光』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 400-402쪽.

9) 윤석범 외 3인, 『한국근대금융사연구』, 세경사, 1996, 189-190쪽. “1907년 일제의 말단 행정·정치기관으로 출발한 금융조합은 1910년대 말 일제의 ‘비상한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나갔다. 금융조합의 역할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초창기에는 ‘총독정치의 선전’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1920-30년대에는 농촌몰락에 따른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를 통해 사회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전시하에는 서민자금을 흡수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국공채를 매입하는 등 전비조달기관으로 활동하였다.”(187쪽)



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시작과 함께 애국반을 결성하여 ‘반도 전주민을 망라하는 일대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단순한 조선연맹의 하부조직의 하나로 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조선인의 생활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조직으로 기능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확대되어 가고 그 말기에 이르러 감에 따라 모든 공출과 배급의 기본 조직으로까지 기능을 함으로써 이 조직을 벗어나서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었다.<sup>10)</sup> 물론 이 만화가 그려진 1940-1941년 당시의 국민총력운동 시기는 전 조선인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애국반의 반장은 애국반원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였고 나아가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출과 배급의 기본 조직으로까지 기능’을 하는 일종의 말단 권력기관이었다. 그러나 만화 『즐거운 박(朴)침지』에서 주인공 박침지는 애국반장으로서 크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박침지가 모범부락 애국반장으로서는 솔선수범하여 애국반원인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여 일제가 주력하는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다. 그는 다소 그와 대립하면서 뻔질거리는 이기적인 허별감을 감싸고 설득한다. 전체적으로 박침지와 허별감의 대립되는 캐릭터가 작품에 웃음과 해학을 부여하면서 맛깔나게 끌고 나간다. 박침지는 애국반원들과 농촌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불어 부테끼며 살아가는, 제목과 같이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 만화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의 아동문학에서 잘 드러나는 웃음과 해학의 미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sup>11)</sup>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家庭の友』 1940년 11월부터 1941년 3월까지 그리고 『半島の光』 1941년 4월부터 1941년 8월까지, 10회 연재된 만화이다. 이 만화들을 『家庭の友』에 연재된 만화와 『半島の光』에

10)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77, 98-99쪽.

11)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연재만화 『명랑(明朗)한 김산 일가(金山一家)』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7집, 한중인문학회, 2017, 7쪽 참조.

연재된 만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家庭の友』에 연재된 만화

<작품 1>(1940.11.)은 박첨지가 금융조합원 운동회에 참가하여 돼지를 상품으로 받게 되는 우스운 이야기다.



<작품 1>(1940.11.)

이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인 박첨지는 운동회 날에 아내가 닭을 팔아 돼지 새끼를 사자고 하여 전을 벌려 놓는데, 아무도 닭을 사러오지 않는다. 그런데 박첨지는 운동회날에 닭을 파는 것이 신체제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운동회에 가고 싶어 한다. 일장기가 걸려 있는

운동장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자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아내에게 운동회에 참례하고 오겠다고 하며 아내에게 전을 맡겨 놓고 자리를 뜬다. 가면서 하는 말이, 닭을 파는 행위는 사적인 것이기에, 신체제하의 국민총력 운동 시기에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공적인 운동회에 노인이라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운동회는 조합원 운동회이다. 그는 다른 노인과 함께 자전거 경주에 참가한다. 그는 같이 자전거

경주에 참여한 다른 노인의 비웃음에 화가 나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가 고장나서, 타고 가야 할 자전거를 들고서 결승선에 들어간다. 규칙을 위반하였어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노력한 덕분에, 상품으로 돼지를 받게 되고, 또한 팔려고 했던 닭도 알까지 낳게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또한 그는 모범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노소를 불문하고 조합원들이 다같이 단합하여 신체제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나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조합원이란 조선금융조합의 조합원이란 의미로 사용된 듯한데, 이는 이 잡지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동시에 신체제하의 ‘공익우선 관념의 철저’<sup>12)</sup>라는 국민총력운동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박침지에게 “자네 따위가 무슨 자전거를 탄답시고 이 모양이야”라고 말하는 수염이 많은 다른 노인인 뒤의 만화에 허별감으로 나오는데, 그는 박침지가 이끌어가는 모범부락이나 애국반의 활동에 비협조적이면서 이기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박침지와 대립적인 인물로, 만화에서 웃음과 해학을 드러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만화는 박침지와 그 가족의 일상에서의 즐거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노인이라도 모범금융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잘 지켜서 일제가 요구하는 신체제 시대에 맞는 즐거운 삶을 살 것을, 웃음과 해학을 통해서 선전하는 만화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닌 대일협력이라는 비뚤어진 해학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작품 2>(1940.12.)는 박침지가 라디오 체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손자에게 개로정신을 고취시키는 만화이다.

이 만화는 박침지가 음악소리에 맞춰 체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새들이 이를 보며 “작자 묘-하다 라디오체조 하는 꼴 좀 봐 / 그래도 팔뚝 좀 봐요.”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아마도 노인네가 운동하는 것을 비웃

12)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56쪽.



<작품 2>(1940.12.)

는듯한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을 하여 노인치고는 건강하다는 뜻도 담고 있는 듯하다. 박침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위 '라디오 체조'를 하는데, 그는 늙을수록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체조를 마치고 손자에게 아침밥을 먹자고 하는데, 늦게 일어난 손자가 고기 반찬을 먹고 싶

다고 하자, 같이 강가로 나가 얼음에 구멍을 뚫어 고기를 잡고자 한다. 그러나 구멍을 크게 뚫다가 물에 빠지는 우스운 상황이 일어난다. 손자는 이제는 고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기르자고 한다. 이에 박침지는 “일하는 끝엔 무어든지 생기는 법야.”라고 하며 일의 중요성을 손자에게 주지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일제가 강요하는 충후에서의 '개로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만화는 충후의 '건민운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일제는 충후의 조선인들에게 '전시국민생활10계(戰時國民生活十戒)'을 제시하여 이들을 일상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⑨일찍 자고

13)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76쪽.

일찍 일어나 건강에 주의하고 일본의 시간이라도 활용하는 규율있는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sup>14)</sup> 특히 라디오 체조는 시간과 개인의 신체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일제가 신체제하에서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사회체도로 작동하여, 사람들의 정신은 물론 신체까지도 일제에 종속시키는 일상적인 의례로 사용된 것이다. 처음에는 국민 보건체조였던 것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7년 10월 8일부터 1940년 이후 국민총력시기에는 황국신민체조로 바뀐다. 또한 라디오 방송 순서에서도 라디오 체조 직전에 궁성요배의 방송이 추가되었다.

라디오 체조는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기원과 전과 과정에는 제국주의 국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조선에서 라디오 체조가 방송되기 시작한 것은<sup>15)</sup> 1932년 7월

14) 『전시국민생활10계(戰時國民生活十戒)』, 『총동원(總動員)』 1권 2호 1939.7, 69쪽. 그리고 『총동원(總動員)』 1권 3호 1939.8., 31쪽. 『총동원(總動員)』 1권 2호에 제시된 『전시국민생활10계(戰時國民生活十戒)』는 다음과 같다. “1. 禮服 全廢, 2. 浪費하지 말자. 3. 婚禮 披露宴, 中元 歲末 贈答 全廢, 4. 流行 衣服 구하지 말자. 5. 歡樂, 遊興 보담도 家庭 團樂. 6. 못 한 箇, 종이 한 張이라도 버리지 말자. 7. 食事は 簡易하게 榮養있게. 8. 空地에는 野菜를 심고, 툇기, 닭을 길느자. 9.早起 朝寢의 規則生活. 10. 禁酒 禁煙 못하면 節酒 節煙”: 그리고 『총동원(總動員)』 1권 3호에 제시된 『전시국민생활10계(戰時國民生活十戒)』는 일본어로 이를 풀어 서 기술하고 있다. “1. 예복은 일체 전폐하고 평상복을 입고 외출 시에도 화미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것. 2. 1전의 돈을 지불해도 국가를 위해 생각하고 조금도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3. 혼례 피로연, 중원 세모의 선물은 단호하게 전부 폐지할 것. 4. 유행하는 의복, 유행하는 가구집기를 구하기보다 더욱 절약하고 저축하여 국가의 위급한 사태에 봉사할 것을 염두에 둘 것. 5. 환락과 유흥을 삼가고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 6. 낡은 못이나 종이 한 장이라도 버리지 말고 활용하기를 고려할 것. 7. 식사는 간소하게 영양가 있는 것으로 섭취할 것. 8. 자택의 공지는 야채, 여물을 만들어 가축, 닭 등의 사육을 위해 활용할 것. 9.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건강에 주의하고 일본의 시간이라도 활용하는 규율있는 생활을 계속할 것. 10. 술·연초는 그만 둘 수 없다면 절주, 절연을 단행할 것.”; 오미일, 『총동원체제하 생활개선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249쪽에서 옮김.

21일부터이며 일제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1938년 이후 학교에서의 체육 활동이 체조와 무도로 단순화되고 다른 종목의 운동은 배제된다. 그 가운데 체조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단체훈련을 통해 규율을 지키고 협동심을 가지는 습관을 배양한다’는 국가의 국민 체력 통제, 즉 건민 정책의 일환이자, 집단성을 통해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시책이었다. 국민 체력 증진을 통해 전쟁의 자원을 강화시키고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라디오 체조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운동과는 비교가 안 될 규모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상상적인 국토, 혹은 학교 등 실재하는 일정한 공간)에서 똑같은 동작을 함으로써 국민, 나아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신을 상상해 내는 것이다.<sup>16)</sup>

체조가 생물학적인 몸에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새겨 넣은 기능을 담당하고 신체를 제도의 관습이 기록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라면 라디오 체조의 수용은 곧 황국 신민화의 기제들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된다. 라디오 체조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국민화·황국 신민화적 특성은 그것의 집단성과 국가의 신체 관리적 성격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의 시간 통제와도 긴밀히 연관된다. 근대적 시간에 대한 동조 장치로서 라디오 체조는 시간과 개개의 신체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제도로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일상적인 의례였던 것이다.<sup>17)</sup>

이 만화는 총후에서 조선인이 건민운동과 개로정신을 통해 건강한 황국신민이 되자는 내용을 낚시에서의 우스운 상황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선전하고 있다.

<작품 3>(1941.1.)은 박첨지가 저축 장려 운동과 절미, 절식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그린 만화이다.

이 만화는 다음과 같다. 박첨지가 지계에 신고 온 장작을 싸게 팔고 생

15) 윤대석, 『식민지에서의 국민화』, 『식민지 국민문학론』, 도서출판 역락, 2006, 142-143쪽.

16) 윤대석, 위의 책, 143-144쪽.

17) 윤대석, 위의 책, 145-146쪽과 148-149쪽.

선 한 마리를 싸들고 오다가 허별감을 만나는데, 그가 점심을 한턱 내라고 하자, 나이값을 하라고 하며 야단을 친다. 그는 점심값으로 저금을 한다. 그리고 비상시국엔 절미뿐 아니라 절식도 가끔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날이 추워서 양지에서 쉬려고 하고 점심을 먹지 못해 배도 고파한다. 꿈 속에서 생선이 무 구



<작품 3>(1941.1.)

덩이에 들어가 무를 먹어라고 하여 거기서 무를 먹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무의 주인 부부가 나타나 구덩이에 산돼지가 들어갔다고 하며 잡아서 끓는 물에 삶아 먹으려 한다. 웃음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럼에도 꿈에서 깬 박침지는 “그만하면 훈훈해지는 걸 공연히 떨고 잇섯네 가다가 칩거든 또 꿈이나 꾸지. 으흠!”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는 당시의 저축장려운동과 절미 절식운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38년 이래 ‘전시 재정경제의 원활한 운영’은 전비 조달을 위한 조선민중에 대한 공제저축, 국채·채권 할당 등, 일본 내지와 비교해서 훨씬 강제적인 저축운동이었다. 즉 총독부는 ‘저축장려계획요강’을 기초로 금융기관이나 보도기관을 총동원해, ‘관민일치협력’과 동시에 저축운동과 실천의 철저·강화를 꾀하였다.

특히 국민총력연맹 결성 이후에는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일대국민운동’으로서 전개하여 각 직장이나 부락마다 국민저축조합을 조직하게 하여 각종의 예금 및 국채·각종 채권 등이 ‘성전(聖戰)’의 명목으로 강요되었다. 1939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저축액을 정하여 공제저금, 국채보유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취해졌다. 그 결과 1938년에서 1944년 10월 사이에 합계 54억 6천여 만 원이라는 막대한 강제저축이 달성되고, 그것은 전비로 유용되어 결국은 수탈당하였다.<sup>18)</sup> 그리고 1940년 12월 국민총력연맹은 ‘절미 및 미곡공출운동’을 벌였다. 여기서는 ‘시미(匙米)의 여행(勵行)’이라 하여 ‘저축장려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절미의 견지에서 이 때에 시미를 여행할 것’이라고 하였다.<sup>19)</sup>

이 만화는 허별감의 이기적 행동과 박첨지의 자발적인 애국적 행동을 대비시키면서, 박첨지가 저축 장려 운동과 절미, 절식 운동에 동참하는 행동을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작품 4>(1941.2.)는 모범부락의 애국반장으로 선출된 박첨지의 단일협력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화이다.

이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첨지가 일찍 일어나 바쁘게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신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징을 들고 나무에 올라가서 징을 치며 마을 사람들을 모은다. 우스운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사는 마을이 모범부락이 되기 위해서는 애국반을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민주적 방식인 제비뽑기를 통해 그가 애국반 반장으로 선출된다. 여기서 게으른 허별감도 뽑기에 참여하나 실패한다. 반장이 된 박첨지와 애국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18) 박경식, 앞의 책, 471-472쪽. 총독부는 전시저축을 강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강대책을 취하였다. ① 전시국민저축의 진의(眞義) 철저 ② 저축총결기태세 확립 ③ 소지 현금의 저축강화 ④ 저축조합의 강화 ⑤ 일시수입 등의 저축강화 ⑥ 저축의 장애가 되는 원인배제 ⑦ 저축추진원 제도의 확립 ⑧ 금융기관의 협력촉진.

19) 김승태, 앞의 책, 153쪽.



여 제일선 장병에게 위문대를 보낸다. 고구마를 가져온 사람도 있다. 그리고 위문대를 들고 행진을 한다. 또한 그는 애국반의 첫 사업으로 술값을 모아 공동저금을 한다. 이는 반원들이 행진 중에 더워서 추렴하여 술을 한잔 하자고 하니 “술은 내가 살테니 돈들이나 내시우.”라고



<작품 4>(1941.2.)

하여 그 돈으로 술을 먹는 대신 공동저금을 한 것이다. 이것이 애국반의 첫 사업이 된 것이다.

이 만화는 박침지가 금융조합의 모범조합원에서 애국반의 반장으로 선출되어, 애국반장으로서 제일선 장병에게 위문대를 보내고, 공동저금을 하는 등 국민총력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박침지의 우스꽝스런 행동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 기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만화에서 본격적으로 모범부락과 애국반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중앙기구의 장악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는 지방 차원 그것도 그들의 삶의 현장인 동리나 면과 같은

말단 지역단위에서 관철되는 것이며, 지방에서의 지배의 실상에 의해 식민지 지배의 성격 또한 규정된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 지배의 방식에 의해 계층 간의 길항 구조 역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sup>20)</sup> 1910년대 후반에 확립된 면제의 시행으로 지방지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면협의회 체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치적 지역운영의 관행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명망가층의 체제 내 포섭과 분열을 이뤄낸 일제는 이제 동리 자체의 직접지배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면을 전초기지로 한 행정 지배가 최종적으로 안정화되려면 지역 자치의 핵으로서 기능하고 있던 동리를 일제가 직접 장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에 총독부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이른바 모범부락 조성 정책이었다.

모범부락정책은 192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총독부가 모범부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도를 피해가면서 1927년부터 성적이 양호한 모범부락을 선정하여 보조금도 지급하였다. 총독부는 모범부락정책을 실시하면서 1927년부터 1931년 사이에 매년 27개, 28개, 37개, 36개, 38개소를 선정하여 총 166개의 모범부락을 표창하고, 보조금으로 총 44,990원을 교부하였다. 모범부락의 숫자 자체는 총 동리수에 비해서 매우 적었지만 그 과급효과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모범부락의 선정과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제도화는 모범부락정책이 다른 부락을 체제순응적으로 개편해 가는 데 매우 자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범부락정책은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수적 측면보다도 전조선의 동리 중에서 모범이 되는 부락을 정책적으로 선정·지원해서 이를 장차 전 동리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초로 삼고, 다른 동리도 이에 자극받아서 점차로 체제순응적인 경향을 띠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었다. 총독부는 1920년대의 모범부락정책을 토대로

20) 김익한, 『일제의 면 지배와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김동노 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혜안, 2006, 65쪽.

해서, 1930년대에 그 정책을 전 동리에 확대 실시하는 형태로 정책을 전개하게 된다.<sup>21)</sup> 모범부락정책은 1933년의 농촌진흥운동에서의 갱생지도부락 등으로,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일제 말기까지 부락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계속되었다.<sup>22)</sup>

애국반은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일제가 조선에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선연맹을 만들 당시에 그것의 지방조직망 가운데 최말단의 기저적(基底的) 실천기구로 만들어 졌는데, 이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선연맹에 이어 1940년 10월 결성된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실시한 국민총력운동 시기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당시 애국반의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동리부락연맹(町洞里部落聯盟) 및 각종연맹은 그 기저조직으로 애국반을 조직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정동리부락연맹에서의 애국반은 약 10호로 조직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각종연맹에서의 애국반은 연맹의 정황에 따라 적당히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넷째, 애국반은 인보협력(隣保協力)하여 본연맹의 기저조직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섯째, 빌딩, 아파트 기타 항상 많은 사람 수를 포용하는 사무소 등에서는 실정에 따라 전각항(前各項)에 준하여 연맹 또는 애국반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모든 세부적인 지침과 활동이 이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률적인 강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었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여러 가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활동의 자발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일본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경우 애국반과 같은 성격을 갖는 인조(隣組), 인보반(隣保班)이라는 명칭의 말단조직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기저조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운동에 대한 내무성의 주도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던 1940년 중반의 일이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조선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시작과 함께 애국반을 결성하여 ‘반도 전주민을 망

21) 김익한, 위의 논문, 88-89쪽.

22) 김익한, 위의 논문, 91-107쪽 참조.

라하는 일대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단순한 조선연맹의 하부조직의 하나로 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조선인의 생활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조직으로 기능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확대되어 가고 그 말기에 이르러 감에 따라 모든 공출과 배급의 기본 조직으로까지 기능을 함으로써 이 조직을 벗어나서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었다.<sup>23)</sup> 물론 이 만화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뽑기에 의해 박첨지가 애국반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이는 애국반 활동이 일제가 주창하는 '활동의 자발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1941년 당시의 국민총력운동 시기는 애국반이 전 조선인을 포함하는 조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범부락의 애국반장으로 선출된 박첨지의 대일협력활동이 애국반원들의 협조 속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만화이다. 이후 『半島の光』에 연재된 만화된 만화는 구체적인 '국민총력운동'의 활동들이 잘 드러난다.

## 2) 『半島の光』에 연재된 만화

<작품 5>(1941.4.)는 박첨지가 모범촌의 애국반장으로 지역봉공을 실천하고, 금을 캐어 국가에 헌납하고, 그리고 애국반원들이 황국신민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첨지가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활동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허별감은 “저 놈의 첨지는 또 무얼 하고서 앉아 있는거야.”라고 말하자, 박첨지는 “일일이 여삼추한 이런 시국에 거 가만이 쉴는 꼴이 뭐가!”라고 하고, 허별감은 “제발 남의 걱정 좀 맡게.”라고 응답한다. 또다시 박첨지는 애국반원들 모아 놓고 “지금 도시에서는 화단을 열어서 농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직역봉공(職域奉公)을 합시다.”라고 하며 허별감에게 이것이 “우리 모범촌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국민된 의무입니다. 공동작업에 빠져서야 됩니

23)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77, 98-99쪽.

까?”라고 하나, 허별감은 여전히 “아서 아서 나한테는 그런 말 말어”라고 한다. 여기서도 허별감은 모범부락 애국반에 협조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공동작업 중에 황금 노다지를 발견하자 허별감이 한몫 챙기려 껴들려고 하다가 쫓겨난다. 박침지가 하늘이 준 선물이니 국가에 헌납하자고 하고, 반원들도 금융조합을 통해 국가에 헌납하고자 하여 조합에 가져가지만, 조합에서는 금은 아니지만 반원들의 정성이 기특해서 한턱 낸다고 한다. 한편 허별감은 금이 나온 구덩이에 금이 또 있을지 모른다고 들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마침 박침지 일행이 구해주게 된다. 박침지와 마을 사람들은 허별감의 나쁜 행동도 감싸 안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박침지가 허별감에게 야단을 치며 “신이 신된 바를 알지 못하구서 어찌 입에 밥만 들어가느냐 말야!”라고 하자, 허별감도 “아니야 인젠 나도 반장될만큼 일 할 테야.”하며 반성하는 말로서 끝맺는다.

이 만화는 애국 반장 박침지와 애국반원들의 행동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1941년 2월 총독부가 시행한 ‘농촌 노동력 조정방침’에 나오는 “농산촌 민중에 대하여 근로보국정신의 양양 강화를 도모하고 개인적이기적 노동 관념



<작품 5>(1941.4.)

을 배제하여 근로, 즉 보국의 관념을 확립시키”<sup>24)</sup>는 것이거나, 국민총력 운동 지도의 중점 내용 중의 사업계획에서, ‘(2) 국민 총훈련’의 “① 직역 봉공의 철저 : 공익우선 관념의 철저, 개인주의 자유사상의 시정” 등이거나, ‘(3) 생산력의 확충’의 “②증산의 수행 : 부락 생산 확충 계획의 완수 (공동작업의 여행(勵行), 전가(全家)노동의 철저), 쌀의 증산 장려, 전작의 산물 증산 장려, 가마니 증산 장려(공한지의 이용), 전가노동의 장려”<sup>25)</sup> 등에서 나타난 바를 황국신민으로서 그대로 실천하는 내용이다.

이 만화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하면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직역봉공과 금을 캐어 국가에 헌납하자는 내용, 그리고 ‘신이 신 된 바를 알지 못하는가’라는 말에서처럼, 애국반원들이 황국신민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융조합에 금덩이를 가져간다는 점이 앞의 만화와 동일하지만, 항상 자신과 대립되던 허별감이 반성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앞의 만화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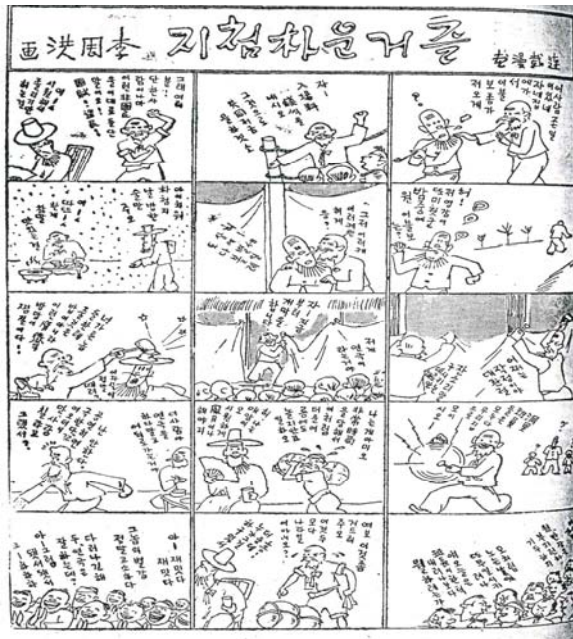
<작품 6>(1941.5.)은 애국반 상회를 개최하여 개미와 매미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한 것으로, 전시하의 농촌에서 공동저금도 장려하고 국민개로 정신을 양양시키는 내용이다.

이 만화는 애국반장 박첨지가 밤중에 자기집으로 애국반원들을 불러 모아 연극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입장료 1원을 거둬 공동저금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애국반의 상회이다. 애국반의 상회는 반장의 집이나, 반원의 집을 빌리거나, 반원의 집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했다. 상회로 모이는 시간은 정연맹이나 구의 상회는 낮에 모이고, 반의 상회는 대부분 밤에 개최되었다. 하절기에는 저녁 8시에 시작하여 10시경에 마치고, 동절기에는 저녁 7시에 시작하여 9시까지 2시간씩 엄수하도

24) 최원규 엮음,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91쪽.

25) 김승태, 앞의 책, 155-157쪽. 1941년도 조선총독부는 국민총력운동 지도의 중점 을 “(1) 시국인식, (2) 허부조직 및 인적 기구의 쇄신, (3) 상회常會의 운영, (4) 각 연맹 지도자 강습, (5) 실행 감독”에 두고, “(1) 사상의 통일 (2) 국민 총훈련 (3) 생산력의 확충”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록 했다. 결석자는 물론 지각자도 없도록 하고, 이 모임에서 잡담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다.<sup>26)</sup> 연극은 개미와 매미의 이야기이다.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박침지가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허별감이 시원하게 풍월이나 읊는 매미로 등장한다. 박침지가 이



<작품 6>(1941.5.)

것도 모두 나라일이 아니냐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허별감은 거절한다. 그러자 박침지는 이런 비국민을 그대로 두어야겠냐며 열변을 토하지만, 허별감은 잠이 온다고 한다. 겨울이 오자 허별감이 춥다고 하며 밥 좀 달라고 하지만 박침지는 “너같은 놈들한테 줄 것은 밥이 아니라 이런 응징(鷹懲)의 방망이 찹질이다!”라며 때리자, 허별감은 연극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며 나가버린다. 애국반원들은 재미있다고 하며 또한 별감이 고소하지만 연극은 잘한다고 하며 모두 웃는다.

이 만화는 애국반 상회를 개최하여 개미와 매미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26)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54쪽. “상회의 개최에서 폐회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개최 (2) 궁성요배 (3) 묵도(국위선양, 무운장구) (4) 협의(주지) (5) 보고 (6) 강화(국민총력운동, 시국대책, 방공, 산업경제, 위생, 생활쇄신 등에 관한 것) (7)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 (8) 폐회”

공연한 것으로, 전시하의 농촌에서 공동저금도 장려하고 국민개로 정신을 앙양시키는 내용이다. 박첨지와 허별감이라는 대조적 인물의 엇갈린 행동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인 만화이다.

<작품 7>(1941.6.)는 모범부락의 애국반원들이 공동경작을 하는 내용이다.



<작품 7>(1941.6.)

이 만화는 모범부락의 애국반원들이 공동경작을 하는 내용이다. 먼저 일억일십 즉 일억명의 사람이 한마음이 되는 것처럼<sup>27)</sup> 모 한포기는 곧 힘 한가닥이라며 공동으로 모심기를 한다. 그런데 허별감은 놀러 다니고 있으니 진흙 좀 발라 주

27) 김승태, 위의 책, 129쪽. '1억1십'이란 용어는, 일본 본토에서 관제국민통합기구로 1940년 10월 대정익찬회가 조직되고 12월 14일 실천요강을 발표하였는데, 이 실천요강의 앞부분에 나온다. "이제 세계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하는 시기에 직면하여, 팔굉일우의 실현을 국시로 하는 황국은, 1억1십, 전능력을 거두어 천황께 귀일해 바쳐. 물심일여의 국가체제를 확립해, 이로써 영광스러운 세계의 도의적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1942년 3월의 경기도지사 연설에서도 "관민일체, 일억일십이 되어 국가봉사제일주의 위에 서서 총력 발휘의 완벽을 기하는" 것이 국민총력운동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만화에 나오는 한자로 된 용어는 대부분 대정익찬회나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의 요강이나 실천계획, 연설문 등에 나오는 것들을 옮겨 놓은 것들이다.



자고 하고, 허별감은 ‘아서 아서 이 미친 것이’ 하며 육십 평생동안 손 끝에 물 안넣고 살았는데 일할 수 없다고 하며 도망간다. 이때 정오가 되어 종이 울리고 ‘순국병사들의 영령’을 위한 목도를 한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1940년 12월부터 종래에 애국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하던 정오 목도를 전국에 걸쳐 매일 실시하도록 하였다. 1940년 11월 27일 사무국 총장 명의로 각도연맹 회장 및 가맹 단체의 장에게 통첩을 보내 12월 1일부터 ‘출정황군의 무운장구’와 ‘전몰장병의 영령’을 위한 정오 목도를 매일 아침 궁성요배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sup>28)</sup> 그리고 점심을 먹고자 하는데, 허별감이 밥 좀 줄라고 하자 ‘노는 놈 입엔 밥도 안드러가는 법야’ ‘어-스 그 밥맛 주-타 오늘 밥맛은 유독 더 맛나는걸!’ ‘이런 밥맛이란 정말 생후 침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몰를 맛일세’ 한다. 그리고 다시 모를 심는데 거머리가 나오자 “거머리썩에 겁내는 녀석이 어찌 억만의 적을 물리치고 충후를 지킨담!” 하며 “자 어서 심읍시다 한 사람이 한 포기씩만 더 심으면 억만 포기가 넘지 안소!”라고 한다. 끝 장면은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이는 국민총력운동의 사업계획 중 ‘생산력 확충’을 위한 ‘증산의 수행’에서 ‘부락 생산 확충 계획의 완수(공동작업의 여행(勵行)), 전가(全家)노동의 철저’, ‘전가노동의 장려’ 등에 해당되는 것이다.<sup>29)</sup> 여기서도 허별감이라는 게으른 인물을 등장시켜,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 박침지와 애국반원들과 대비시키면서, 모범부락민들의 공동경작을 통한 충후 국민으로서 국민개로, 근로보국의 실천을 드러내고자 한다. 앞의 만화와 마찬가지로 웃음과 해학이 담겨있다.

<작품 8>(1941.7.)은 애국반원의 공동작업을 통한 근로보국과 시국강연회 참가를 통해 황국신민으로서 시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 김승태, 위의 책, 155쪽.

29) 김승태, 위의 책, 157쪽.



<작품 8>(1941.7.)

이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이 가물어 애국반원들이 공동으로 일치협력하여 응덩이를 파서 한논에 물을 대고 염천을 대비하는데, 마침 시국강연회에 오리는 호외회람판을 보고 모두가 강연회에 간다. 그런데 강연회에 가지 않은 허별감이 자기 눈에 물이

오게끔 구멍을 뚫게 된다. 연설을 듣고 온 사람들은 오늘밤 연설이 좋다고 하며 장개석보다도 영미가 더 훌륭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허별감이 물을 도둑질한 사실을 알고 발끈하여 별감에게 물을 먹이고 “너 이녀석 황국신민으로서의 자량도 아는 동시에 또한 부끄럼도 배워야해!”라고 야단친다. 그러나 끝에는 박첨지 일행이 “별감 염려 말게. 약을 줄테니!” 하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니, 허별감은 “홍 이 자식이 정말 병주고 약주는 놈일세 그러”하며 함께 돌아간다. 이처럼 애국반원의 공동작업을 통한 근로보국과 시국강연회 참가를 통해 황국신민으로서 시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시국강연회에 부락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일본정신의 양양’을 통한 ‘사상의 통일’이라는 국민총력운동의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sup>30)</sup> 또한 당시 일제의 주적인

30) 김승태, 위의 책, 156쪽.

영국과 미국에 대해 “장개석 보다는 영미가 더 흉물이야”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일협력의 내용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에 허별감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모범부락 애국반원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작품 9>(1941.8.)는 모범부락 낙성기념 행사에서 과자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범부락 낙성기념으로 과자를 사먹으려고 애국반원들이 뽑기를 하였는데, 허별감이 제비뽑기에 걸려서 밤중에 과자를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그는 과자는 사지 않고, 주점에 색시가 있는 것을 보고 색사와 술을 마시고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작품 9>(1941.8.)

길거리에서 잠이 든다. 꿈 속에서 도깨비가 별감의 정신 못 차리는 행실을 보고 이런 긴장된 시국에 일본국민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며 꾸짖고 펄펄 끓는 기름술에 넣고자 하는데, 마침 박침지 일행이 불을 들고 찾아와 허별감을 깨우게 된다. 끝으로 허별감에게 정신차리라고 하며, “『半島の光』 독자 보기에 창피해서도 내일부터는 안 나와야겠다”고 하며

“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하는 인사와 함께 연재를 종결한다. 꿈의 형식을 빌어 일본국민이 아닌 행동을 일삼는 허별감을 벌하고 있다. 이 만화는 앞의 만화들과는 달리 ‘일본국민’이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등장할 정도로 전시체제하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세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의 만화들과 같이 허별감의 이기적이고 우스꽝스런 행동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상을 통해볼 때, 『즐거운 박(朴)침지』는 일제의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1940년 11월부터 1941년 8월까지 식민지 농촌의 한 모범부락을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 박침지가 조선금융조합의 모범조합원이자 애국반 반장으로 농촌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황국신민으로서 활동 즉 신체제하의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이라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부락일에 솔선수범하며 부락민인 애국반원들을 이끌어가는 성실한 박침지와, 그와 대비되는 게으르고 이기적인 인물인 허별감을 등장시켜, 작품에 웃음과 해학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대일협력이라는 반민족적인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뚤어진 해학정신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sup>31)</sup>

### 3. 결론

이주홍의 『즐거운 박(朴)침지』는 일제 말기 친일잡지인 『家庭の友』 1940년 11월부터 1941년 3월까지 그리고 『家庭の友』의 후신인 『半島の

31) 오진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즐거운 박 침지’의 경우 모범촌 반장 박 침지가 동네를 이끌어나가며 뻘질거리는 허 별감을 설득하는 형식으로, 박 침지와 허 별감의 대비되는 캐릭터가 작품을 맛깔나게 끌고나간다. 그런데 가만 보면 모범촌 반장 박 침지가 마을 사람들을 독려해 하는 일이란 일제가 벌이는 사업에 앞장서는 일이다.” 오진원, 『이주홍 연표의 비어있는 기간을 찾아서』, 『어린이와 문학』, 2011, 10. 원종찬 외 지음,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엮음. 『한국아동문학사의 재발견』, 청동거울, 2015, 361-371쪽.

光』 1941년 4월부터 1941년 8월까지 10회 연재된 만화로, 각 편이 15칸으로 짜여져 있다.

이 만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家庭の友』에 연재된 만화와 『半島の光』에 연재된 만화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家庭の友』에 연재된 만화는 <작품 1>(1940.11), <작품 2>(1940.12.), <작품 3>(1941.1.), <작품 4>(1941.2.)이다. <작품 1>은 박침지가 금융조합원 운동회에 참가하여 돼지를 상품으로 받게 되는 우스운 이야기다. <작품 2>는 박침지가 라디오 체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손자에게 개로정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이다. <작품 3>은 박침지가 저축 장려 운동과 절미, 절식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그린 만화이다. <작품 4>는 모범부락의 애국반장으로 선출된 박침지의 대일협력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화이다.

『半島の光』에 연재된 만화는 <작품 5>(1941.4.), <작품 6>(1941.5.), <작품 7>(1941.6.), <작품 8>(1941.7.), <작품 9>(1941.8.) 등이다. <작품 5>는 박침지가 모범촌의 애국반장으로 직역봉공을 실천하고, 금을 캐어 국가에 헌납하고, 그리고 애국반원들이 황국신민의 자세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6>은 애국반 상회를 개최하여 재미와 매미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한 것으로, 전시하의 농촌에서 공동저금도 장려하고 국민개로 정신을 양양시키는 내용이다. <작품 7>은 모범부락의 애국반원들이 공동경작을 하는 내용이다. <작품 8>은 애국반원의 공동작업을 통한 근로보국과 시국강연회 참가를 통해 황국신민으로서 시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품 9>는 모범부락 낙성기념 행사에서 과자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전시체제하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세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박침지이며, 그와 다소 대립되는 인물로 허별감이 있다. 그런데 박침지는 초기의 만화에는 조선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이후에는 모범부락의 애국반장으로 신분이 변모한다. 조선금융조합은 일

제의 정치선전기관으로서 한국인의 친일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인공을 이런 조합원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펴낸 『家庭の友』라는 잡지의 성격에 부합되는 인물을 내세워 대일협력을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당시 애국반의 반장은 애국반원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였고 나아가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모든 공출과 배급의 기본 조직으로까지 기능을 한 일종의 말단 권력기관이었다. 그러나 만화 『즐거운 박(朴)침지』에서 주인공 박침지는 애국반장으로서 크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박침지가 모범부락 애국반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애국반원인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여 일제가 주력하는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다. 그는 다소 그와 대립하면서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뻔질거리는 성격의 허별감을 감싸고 설득한다. 전체적으로 박침지와 허별감이라는 대립되는 캐릭터가 작품에 웃음과 해학을 부여하면서 이야기를 맛깔나게 끌고 나간다. 박침지가 애국반원들과 농촌의 일상의 삶속에서 더불어 부테끼며 살아가는, 제목과 같이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만화는 적극적인 대일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를 웃음과 해학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즐거운 박(朴)침지』는 일제 말기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1940년 11월부터 1941년 8월까지 식민지 농촌의 한 모범부락을 배경으로 하여, 부락일에 솔선수범하며 애국반원들을 이끌어가는 성실한 조선금융조합의 모범조합원이자 애국반의 반장인 박침지와, 그와 대비되는 게으르고 이기적인 인물인 허별감을 등장시켜, 농촌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황국신민으로서 활동을 웃음과 해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즉 신체제하의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이라는 대일협력의 내용을 제국주의 일본의 시선으로 선전하고 있는 비뚤어진 해학정신을 보여주는 만화이다.

## 참고문헌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 김윤수 외 57인 지음, 『한국미술 100년 ①』, 한길사, 2006.
-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류종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1권, 세종출판사, 2006.
-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4.
-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만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8집, 한중인문학회, 2015, 127-151쪽.
- \_\_\_\_\_,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 393-428쪽.
- \_\_\_\_\_,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2)」, 『한국문학논총』 제76집, 한국문학회, 2017, 405-437쪽.
- \_\_\_\_\_, 「일제 말기 이주홍의 연재만화 「명랑(明朗)한 김산 일가(金山一家)」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7집, 한중인문학회, 2017, 1-32쪽.
- \_\_\_\_\_, 『이주홍과 동양지광』, 세종출판사, 2017.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시공사, 1999.
- 시미즈이사오 편, 『풍자만화로 보는 근대일본』, 소명출판, 2011.
- 오미일, 「총동원체제하 생활개선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235-277쪽.
-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 윤병렬, 『한국해학의 예술과 철학』, 아카넷, 2014.
- 오진원, 「이주홍 연표의 비어있는 기간을 찾아서」, 『어린이와 문학』, 2011, 10. 원종찬 외 지음,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엮음. 『한국 아동문학사의 재발견』, 청동거울, 2015, 361-371쪽.
- 최 열, 『한국만화의 역사』, 열화당, 1995.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77.
- 홍선표, 『한국 근대 미술사』, 시공사, 2009.



<Abstract>

## A Study on Lee, Juhong's Serial Comics 『The Pleasant Sir Park』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Rhyu, Chong-Ryeol\*

Lee, Juhong's 『The Pleasant Sir Park』 is a serial comics with a 15-cut strip issued 10 times in the Japan-friendly magazine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from November, 1940 to March, 1941 and its successor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from April to August, 1941. Out of these, the strip issued on March, 1941 is excluded due to its facsimile condition. Its background is set the period of 'National cooperation Movement' and its contents are how the movement was carried out in detail.

The protagonist of the comics is Sir Park and its antagonist Edler Hoe. Sir Park is described as a member of the Chosun Financial Society Association in the early part of the issues and then turned to be the head of the patriot team. The Chosun Financial Society Association was founded as a propaganda organization to make Korean people Japan-friendly and depicting the protagonist as a member of it itself meets the identity of the magazine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which was published by the Chosun Financial Society Association with the purpose of cooperating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In addition, the head of the patriot team

---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ntrolled and monitored the members' routine of the team, and in the late stag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eam acted as a terminal authority functioned as the basic organization from all the allocated toll and distribution at that time. However, the protagonist of 『The Pleasant Sir Park』 doesn't act his authority as a head of the patriot team. Rather, he voluntarily cheers the town people and leads the national cooperation movement which Japan focused on. He tried to keep persuading Edler Hoe who is selfish, idle and lazy and opposing him and make him a member of the group. The conflict of the two characters makes the story much more humorous and witty. He is depicted 'pleasant' as the title living the routine in the rural area with his team members. In other words, this comics contains active cooperation with Japanese government in the means of humor and wit.

To sum, 『The Pleasant Sir Park』 depicts the performances as the people of the emperor in the daily routine in the background of a sample village in the rural area with the two confronting main characters of Sir Park and Edler Heo from November, 1940 to August, 1941. The two characters delivers the performances as the people of the emperor with humor and wit. In short, it shows that the comics acts as a propaganda of the Japanese imperialis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operation movement under the new system with the distorted spirit of humor.

Key Words: Lee, Juhong, Serial Comics, *The Cheerful Family of San Kim*,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distorted spirit of humor

■ 논문접수 : 2018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9일

■ 게재 확정 : 2018년 4월 16일